



85년도 2차 이사회개최

- 9월10일 축산회관회의실 -

85년도 제2차 이사회가 지난 9월 10일(화) 오후 1시 축산회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가입회원 승인 △'85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한 자조사업계획(안) 승인 △기타사항 등 부의 안건을 심의했다.

황인옥전무는 협회주요업무현황 보고에서 주요 행사참가 회의 및 행사개최, 주요사업추진 실적(유통구조개선, 종계검사 방역대책, 닭경제능력검정사업, 발간사업, 정책자료연구 및 건의, 정보 전달, 하계양계강습회 개최, 닭고기요리솜씨대회 및 요리강습회개최, 지부업무확인지도, 양계유료연수생 해외파견) 등에 대하여 보고했다.

신가입회원은 일반회원 4명을 가입승인했다. '85년 제1차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87만5천과 특별회계 1천439만6천원을 증액 승인했다.

이밖에 일부 규정개정에서 닭경제능력 검정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종계수급규정 및 종계등록규정은 사문화되어 폐기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한 자조사업계획(안)에 대한 토의에서 8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홍보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회의가 끝난후 제1회 닭고기요리솜씨대회 시상식 및 리셉션에도 참석하였다.

제6차 검정위원회 개최

85년 9월 3일 본회 회의실에서 검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본검정소 추진 사업실적 보고후 제19회 산란계 검정출품구수를 갈색 7개군 백색 4개군 합계 14개군으로 결정했으며, 세부지침은 위원회에서 결정 지시했다.

제14회 육용계 검정성적검토에서는 종란 및 초생초 암호부호를 이날 공표했으며, 자료검토후 월간양계지에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 10월 육계분과회의 28일로결정 -

지난 9월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분과회의가 개최되었다.

전국 일원에 걸쳐 육계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각처의 현황에서 육계가격은 서울 근교가 하이 700원, 세미가 700~800원선으로, 특히 충청지역은 더욱 낮은 편이었다. 남부지방은 850~900원으로 서울의 시세영향으로 약세인 편이었다. 출하 및 소비는 추석으로 인하여 정상적이고 순조로운 편이나 물량이 약간 많은 편이며 소비가 다소 부진한 편이다.

특히 육계가격이 아주 낮는데 비해 입추는 과열현상에 가깝게 활발한 편이어서 빠른 시일내 가격회복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병아리 가격은 사료



가격의 인하와 구입이 용이함으로써 병아리 입추과 열로 인하여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종계 노계가 적기에 도태가 안되고 있으므로 병아리 출하수수가 줄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육계업자들은 입추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 월회의때 추석물량에 대해 입추를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지금과 같은 불황을 피할수 있어 육계분과회의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보다 많은 회원이 참석해서 정보교환과 전망을 검토함으로써 육계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줄 것을 촉구했다. 10월 육계분과회의는 27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0월 28일에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회원이 참석하기를 바란다.

광주분회 9월 월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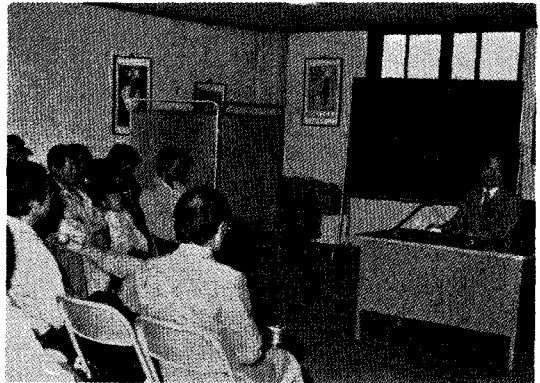
-본회 황인옥전무, 간담회개최-

본회 광주분회(분회장 한승준)는 지난 9월 17일 분회 회의실에서 9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양계조합 총대선거안, 난가, 계육 전망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본회 황인옥전무와의 간담회에서는 본회 업무보고에서 가족질병예찰협의회, 생산자 단체장 및 농수산부 관계관 초청 좌담회 개최, 채란, 육계·종계·부화 분과위원회 개최, 자조사업계획, 도계유통 좌담회, 계산물 유통 규격세미나, 하계 양계강습회, 회원 선진지 시찰, 부정 닭고기 유통 건의, 발간사업, 추백리 근절대책 등 본회 주요 업무보고

에 이어 협회의 중요성과 회원상호간의 우의증진 등에 대해서 말했다.

이날 성남 대영공업사에서는 기계 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계인 선진지 및 산업시찰

본회는 양계인 국내 산업시찰단을 모집한다. 오는 11월초 2박3일 동안 선진양계단지, 산업시찰을 할 예정인데 채란, 육계, 종계, 부화업회원들을 대상으로 40명 선착순 접수한다. 소요경비는 약 7만원 정도로 본회 편집국(전화 778-8103~4)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계산업안정화를 위한 자조사업

-양계산물 홍보사업 실시예정-

본회는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 양계농가의 소득증대와 관련업계의 사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조사업의 일환으로 양계산업안정화를 위한 자조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0일(화) 2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르면 광범위한 업계 관계자들로 양계산물소비촉진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1986년부터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 협의회에서 사업추진방법, 사업비거출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된 사업은 잡지, 신문, 지하철 홍보판, TV, 라디오 등 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양계산물

홍보사업을 추진하며 양계인, 부화인, 도계업자, 사료회사, 동물약품업체, 기구·기계업체 등 관련 모든 업체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자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할 예정이다.

양계산업은 지난 60년대 산업화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축산업중 가장 빠르게 발전해 왔으나 80년대 들어와 그 성장속도가 타축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닭고기 및 계란은 값이 싸고 품질이 우수함에도 소비신장을 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것은 상품성이나 유통과정의 개선뿐만 아니라 대소비자 홍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돼 이번 양계산업안정화를 위한 자조사업에 모든 양계관련인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란다.

본회는 년내에 개최되는 차기 이사회에서 업체별 분담금을 확정지어 닭고기, 계란별로 협찬금채원을 구분하여 소요금액을 모으며 협찬업체 및 개인의 명단은 수시공개 할 예정이다.

전남지부회원 선진지 시찰

- 한일농원, 구량식량 등 -

본회 전남지부(지부장 안명수) 채란, 육계, 종계



부화회원 50여명은 지난 9월 5일, 6일 1박2일간 선진지 양계시찰을 했다.

이번 시찰단은 날로 기계화되는 양계시설과 도계장 등을 둘러봤는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한일 농원 원종계 농장에 대해서는 김춘수상무가 슬라이드를 통해 소개한 후 견학을 했으며, 구량식량도계장, 브로일러농장을 신정일사장의 안내로 둘러 보았다.

이어 강화도 유적지와 유일농원 채란농장을 둘러 보았다. 본회 임덕성사무국장과 편집국 민병호기자가 안내를 맡았다.

닭고기를 먹자

닭고기는 부위에 따라 빛깔과 맛이 다르다. 가슴부분은 살이 희고 지방이 적어 맛이 담백하다. 다리는 살이 붉고 독특한 풍미를 지니고 있어 상품으로 친다. 젊은이가 먹으면 바람난다고 일러온 날개에는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많아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닭은 날개를 가진 짐승이기 때문에 風을 일으켜 고혈압은 물론, 風으로 일어나는 모든 질병에 좋지않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또한 임신했을 때 닭고기를 먹으면 태어난 아기의 살결이 거칠어져 이른바 닭살이 된다는지 산모가

먹으면 젖이 귀해진다는 속설들이 있으나 과학적으로 검토해 보면 전혀 터무니 없는 말들이다.

닭고기는 식이요법을 해야할 당뇨병환자나 고혈압환자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식품이다. 또 단백질과 질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하는 임신부나 수유부에게 닭고기는 권장해야 할 식품이다. 닭을 폭고아서 그 국물에 미역국을 끓이면 산후회복 음식으로 매우 훌륭한 영양균형식이 된다.